

새로운 각오

개인은 물론 국가나 기업에 있어서도 주위여건의 변화와 내부조직의 변화 등으로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맞게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아 왔다.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지금부터 18년전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순수한 민간단체 차원의 전문 방재기관으로 탄생하여 당시 우리 사회에서 불모지였던 화재예방과 안전분야에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은 물론, 이 분야에 독보적인 존재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위여건은 방재분야에서 우리 협회가 독점하는 것을 더이상 허락하지 않았다.

협회창립 바로 이듬해인 74년에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를 선두로 80년에는 소방안전협회, 87년에는 산업안전공단이 발족된데 이어 앞으로 건축물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도 곧 발족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 상황을 접하면서 혹자는 우리의 노력이 미흡해서 또는 적극적인 업무확장시도를 소홀히 해서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도 보였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곰곰히 생각해 볼 것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한 단체에서만 한 분야를 전담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더라도 화재안전분야에 있어서 소방연구소를 비롯하여 소방설비안전센터, 소방검정협회 등 여러 기관이 각기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것을 확고한 제도안에서 제공되는 제도의 뒷바침으로 우리의 업무가 수행되기를 바라지 않았나하는 안일한 사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에 몸에 배어 지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되풀이 하거니와 우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새로이 생긴다하여 “우리가 설 땅이 어디냐?”하는 식의 위기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어느 재벌총수가 즐겨 인용했다는 <메기論>을 소개하면, 눈에 미꾸라지를 키울때 메기 한마리를 눈에 넣어 함께 키우면 메기를 넣지 않을때 보다 미꾸라지가 훨씬 살이 쪼든다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미꾸라지가 메기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동으로 부지런히 메기로 부터 도망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먹이를 더 많이 먹어 발육상태가 좋아진다는 것으로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적절한 경쟁상대나 위기의식은 오히려 조직을 발전시키고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방재업무를 수행하여 온지 벌써 18년을 맞이하고 있다. 18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으로 치면 성년을 맞이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방재업무가 좀더 성숙하고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주위여건이 비록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다 해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